

2026년 7월 28일

Hana FX Daily Letter

향후 원화의 실질가치는?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달러 강세와 국내 증시 외인 자금 이탈 등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460~1,473원

■ 중동 군사 충돌 중단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으나, 연준이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매파적일 것이라는 경계감이 유지되며 강달러 흐름이 유지됨. 여기에 뉴욕증시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면,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상단에서 대기 중인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될 경우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1,46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24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6.7원 오른 1,465.2원에 마감 초반,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과 유가 하락 영향으로 1,450원대 후반에서 등락. 그러나 저가 매수세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등에 상승폭을 키우며 1,460원대 후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침. 이후 야간장에서 1,470원대 진입했으나,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 속 유가 하락세 이어지면서 1,460원대 중반으로 재차 하락해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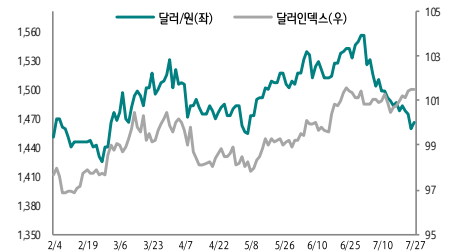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이란 간 긴장 완화 기대와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FOMC를 앞두고 연준이 매파적일 것이라 우려가 지속되면서 강달러 지지력이 유지됨
- (유로-달러) 중동 내 무력 충돌이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지만, ECB가 추가 긴축에 신중할 것이라 전망 속 유로화는 보합세를 기록
- (달러-엔)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안도감에 유가 불안이 다소 완화되었고, 이에 힘입어 엔화 약세 흐름도 잠시 주춤해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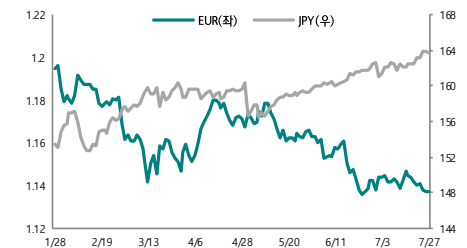
■ 최근 달러/원 명목환율은 외환 수급 개선과 성장을 호조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6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명목환율과 차이를 보였음. 이러한 괴리의 가장 큰 원인은 지표 산출의 시차와 누적된 상대적 물가 부담 때문으로 판단됨. 그간 고유가와 고환율로 수입 물가 상승세가 장기간 누적되면서 주요 교역국 대비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 구매력이 약화되었음.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및 서학개미 등 구조적인 외화 유출 요인까지 중첩되며 원화의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짐. 결국 명목환율은 단기 수급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반면, 실질실효환율은 누적된 물가 격차와 구조적 유출의 여파를 시차를 두고 반영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임. 하지만, 향후 두 지표의 괴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최근의 외환 수급 개선과 한은의 매파적 기조에 따른 물가 안정 흐름이 시차를 두고 실질실효환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경제 성장을 상향 등 원화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실질가치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향후 원화의 실질가치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59.9	1,472.4	1,457.0	1,464.6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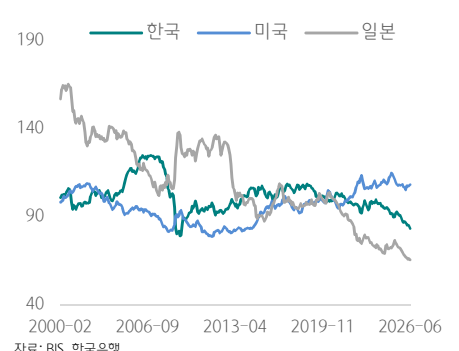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369	163.75	6.7654
전일대비	+0.0001	-0.10	-0.0062
재정환율	1,664.17	896.16	216.90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30	미국 6월 도매재고(MoM)	0.5%	0.1%
23:00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수	92.1	91.2

주요국 실질실효환율 추이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